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의 부활

2015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부활절맞이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의 부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누가복음 24장 45~48절)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 삼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2015년 부활절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2015년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먼저 가신 갈릴리, 오늘날 갈릴리는 어디일까 질문합니다.

최초의 한국교회부활절연합예배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전신인 조선기독교연합회에 의해 1947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광복을 맞았지만 사회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던 사회에 '희망'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는 것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망'이심을 전달하는 부활의 사회적 의미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2015년, 오늘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2014년 4월 16일, 우리의 아이들이 바다 속으로 사라졌던 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돌려쳐진 죽이는 힘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세월호는 부정과 부패, 부당과 부조리, 그리고 몰인정과 비상식으로 침몰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고발합니다.

대한민국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부활하신 예수께서 먼저 찾아가실 곳은 어디입니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규가 새어 나오는 황폐한 노동환경, 허리가 꺾인 채 70년 동안 살아온 분단된 땅의 젊은이와 그들의 미래, 극한의 공포를 감추고 웅크려 앉은 노후한 핵시설. 88만원으로 채울 수 없는 가난한 청년들의 자리, 자유로이 다닐 수 없는 장애인의 휠체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2015년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부활의 사회적 의미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화려한 예배당 보다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거리에 앉기로 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증인'이라 하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 '희망'이 되어 환영 받을 갈릴리로 가기로 했습니다.

2015년 부활절맞이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의 부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누가24:45~48)

2015년 부활절 주제해설

그리스도의 태어나심, 삶, 죽음, 곧 이어진 부활은 성서가 전하는 복음의 중심이며 전 부입니다.

예수께서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태어났으며 세상에 왔다.(요18:37)'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증언이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눅4:18~21)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로 증거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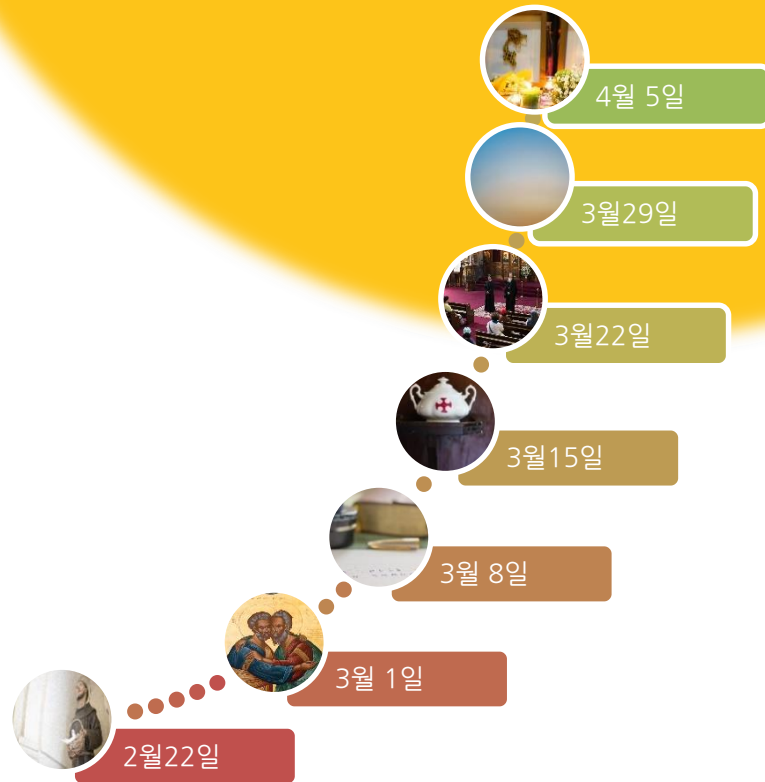
예수께서는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자신의 죽음과 부활, 교회의 사역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이어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살고 죽을, 또한 마지막 날에 부활에 참여할 '증인'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만개한 죽음의 정황을 고발하고, 죽임 당한 것을 살려내는 '증인', 즉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에 '증인'은 여러모로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초대교회는 순교를, 오늘날에는 정의와 평화를 지키다 외면 당합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너무나도 갈망하여 "은총이여 오소서, 이 세상이 사라지게 하소서(didache10)."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반하는 온갖 잘못들이 바로 설 것을 희망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우리의 증언은 동시에 정의, 평화 그리고 생명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희망의 선포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곧 그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곳에는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야 합니다. 어그러진 것들이 제 자리를 찾도록 해야 합니다. 용서와 화해, 생명의 회복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현세 속에서 부활의 사건이 선취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실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부활절맞이
이렇게 합니다.

영적 순례를 떠납니다
사순절에서 부활절까지 7주간



2015년 부활절맞이

2월 22일_사순절 첫 주간

누가 '증인'입니까?

누가복음 24장 45~48절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도 가 고난을 받고 제삼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지 그분을 믿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도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머무는 곳에는 예수가 나타나야 합니다. 교회가 있는 마을에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리에 가득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께서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태어났으며 세상에 왔다(요18:37).”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증언이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바로 당신, 예수님을 믿는 당신이 ‘증인’입니다.

좋은 ‘그리스도인’,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교회만이 세상의 갈등을 극복하고 화해시키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희망과 대안을 제시할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유혹들로 가득 찬 세상의 한 가운데서 정의를 이루고, 섬기는 삶을 구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의 자유를 선포하고 삶의 주체로 일어서도록 도와야 합니다.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자기 땅의 열매마저도 누리지 못하는 이 시대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창조질서의 회복을 위해 진력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는 생명을 존중하는 가치관을 일깨울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이 서로 얽혀 존속함을 일깨우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증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 스스로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 그의 나라를 실현하는 공동체로서 예배, 직제, 신학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3월 1일 _사순절 둘째 주간

핵 없이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신명기 30장 19절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너의 앞에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내놓는다. 너희나 너희 후손이 잘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여라(신30:19)

창세기 1장 31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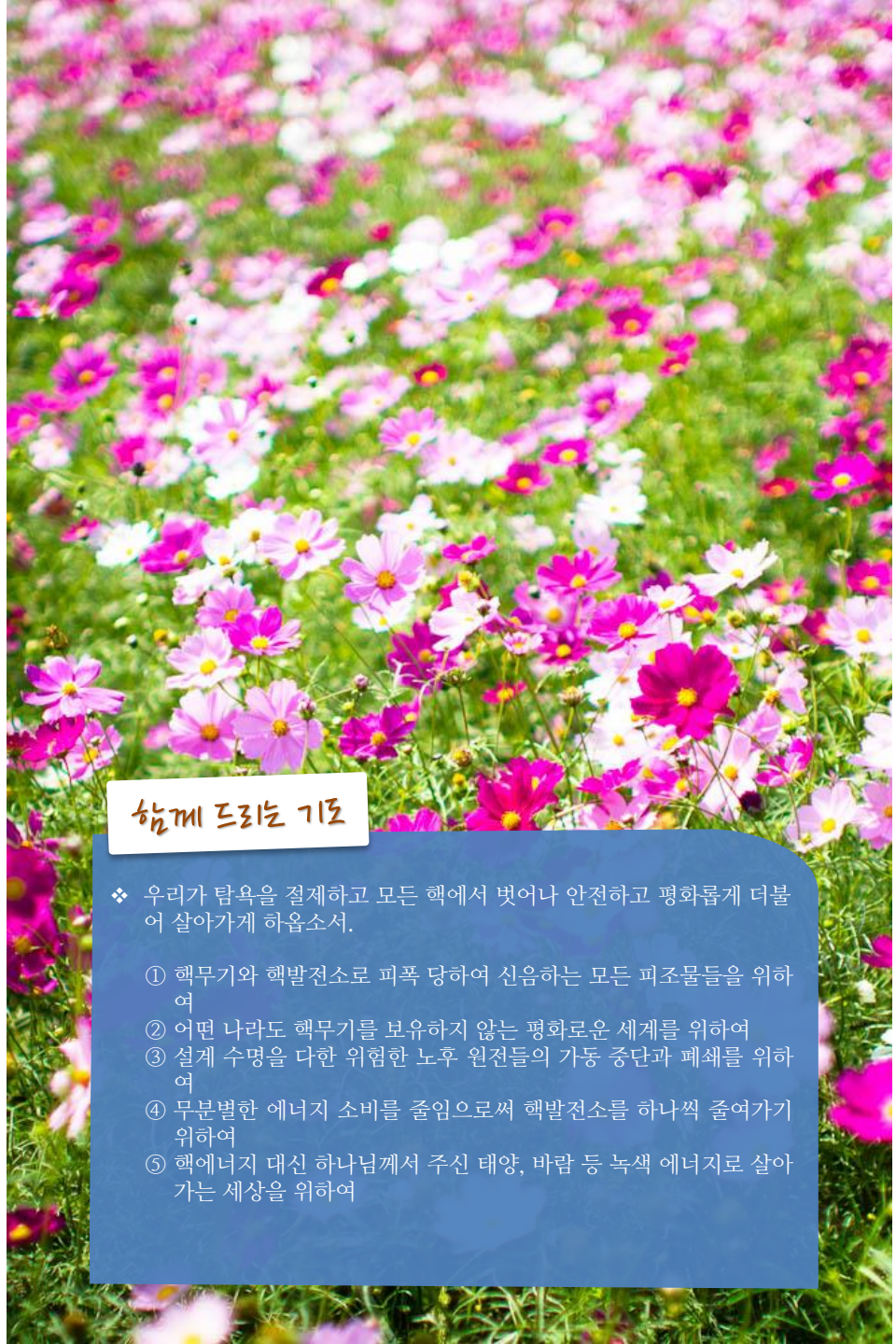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CP-1이라는 이름의 세계 최초의 원자료가 미국 시카고대학에 지어졌을 때, 과학자들은 인간이 가히 조물주의 영역에 들어섰다고 자부했습니다. 핵은 생명의 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이 아닙니다. 핵은 인간의 교만과 무절제한 탐욕으로 취하게 된 '현대판 선악과'입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핵폭탄과 체르노빌·쓰리마일·후쿠시마에서 발생한 핵발전소(원전)사고는 핵이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죽음의 열매'라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의 욕심은 멈출 줄을 모르고, 더 많은 핵무기와 핵발전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설계수명 30년을 넘은 원자로에서만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설계수명을 다한 노후 원전이 3기나 있는데, 이것을 폐쇄하기는커녕 계속 사용 기간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 원전들 주변에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며 살고 있고, 원전 주변 바다 생태계는 교란되고 파괴되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돌보고 보전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창2:15)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핵 없는 생명세상, 평화세상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다짐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드리는 기도

- ❖ 우리가 탐욕을 절제하고 모든 핵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평화롭게 더불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 ① 핵무기와 핵발전소로 피폭 당하여 신음하는 모든 피조물들을 위하여
- ② 어떤 나라도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평화로운 세계를 위하여
- ③ 설계 수명을 다한 위험한 노후 원전들의 가동 중단과 폐쇄를 위하여
- ④ 무분별한 에너지 소비를 줄임으로써 핵발전소를 하나씩 줄여가기 위하여
- ⑤ 핵에너지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태양, 바람 등 녹색 에너지로 살아가는 세상을 위하여



3월 8일 _사순절 셋째 주간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하여

누가복음 10장 36~37절

“자,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준 사람은 누구였다고 생각하느냐?” 율법교사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그들의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자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갑작스럽게 일터에서 해고된 노동자들, 같은 시간, 같은 일을 하면서도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 받는 장애인들, 피부색이 다르고, 종교적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거나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이주민 노동자들과 다문화 가정,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빈곤한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는 말씀을 따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고난을 나누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길입니다.

함께 드리는 기도

- ❖ 이 땅의 빈곤, 불평등, 차별로 인해 고난 받는 약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소서.
- ①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한 사람들을 위하여
- ② 일터에서 해고되고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하여
- ③ 장애는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음에도 차별 받는 장애인들을 위하여
- ④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이주민들과 다문화 가정을 위하여
- ⑤ 군대와 사회 곳곳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을 위하여



3월 15일 _사순절 넷째 주간

나와 함께 설지어다.

이사야 50장 8절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룰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이사야 50장에는 예수의 고난을 상기시키는 구절들이 있습니다.(5~8절) 예수는 십자가의 길을 거역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때리려는 자들에게 등을 맡기었고, 수염을 뽑으려는 자들에게 뺨을 내주었고, 칩 뱉음을 당해도 얼굴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네 삶에도 고난의 현장은 여전합니다. 부당한 말과 대우로, 부정의와 폭력으로 세상은 눈물 마를 틈을 주지 않습니다. 사회적 약자라는 틀 안에서조차 종종 소외되기 일췌인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서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들과 함께 서서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드리는 기도

- ① 동료폭력으로 죽음 당한 자녀를 둔 부모들의 아픔을 기억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 되게 하소서!
- ② 이 땅 가운데 어리고 힘없는 아동과 여성들이 인신매매, 성매매 당하지 않는 세상, 생명이 귀하게 여김 받는 세상 되게 하소서!
- ③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삶을 위로하시고, 한.일정부가 책임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더 이상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하소서!
- ④ 여성목회자들이 몸 된 교회를 섬기며,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건강한 교회되게 하소서!

3월 22일 _사순절 다섯째 주간

용서와 화해로 남북이 하나되게 하소서

마태복음 5장 9절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분단으로 헤어진 가족을 향한 기약 없는 기다림으로 가슴에 한을 품고 살아가는 분들, 식량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동포들, 모든 일을 이념문제로 치부하며 생기는 온갖 부조리들. 이 모든 것들이 한반도 분단이 장기화 되면서 한국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습니다. 또한 한 해의 절반을 전쟁연습으로 보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쟁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국민들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불감증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아가 분단의 지옥은 우리 젊은이들에게서 많은 기회를 앗아가고 있습니다. 창의력은 더 많이 상상하고 경험할 때 얻어지는 것인데 우리 젊은이들은 기성세대가 물려준 이념의 틀 안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일베 현상'은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젊은이에게 기회를 돌려줍시다. 남북의 미래는 곧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입니다.

광복 70주년에는 이 모든 사슬을 끊고 서로를 향한 용서와 화해의 불길 이 타올라 평화가, 우리 젊은이들을 위한 미래를 위해 온 교회가 마음과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함께 드리는 기도

- ❖ 분단으로 고통 받고 있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며
 - ① 이산가족의 아픔에 동참하며
 - ② 병역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이 땅의 젊은이들을 기억하며
 - ③ 이념대립으로 갈등하는 이 사회를 위하여
 - ④ 식량난으로 신음하는 북녘의 동포들을 기억하며
 - ⑤ 전쟁연습과 군사기치화로 신음하는 한반도를 위하여

3월 29일 _종려주일, 고난주간

기억하십시오!

마가복음 11장 7~11절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겹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겹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띄우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몇 날 전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쳤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나뭇가지를, 겹옷을 흔들며 환호하던 그이가 바로 나의 자아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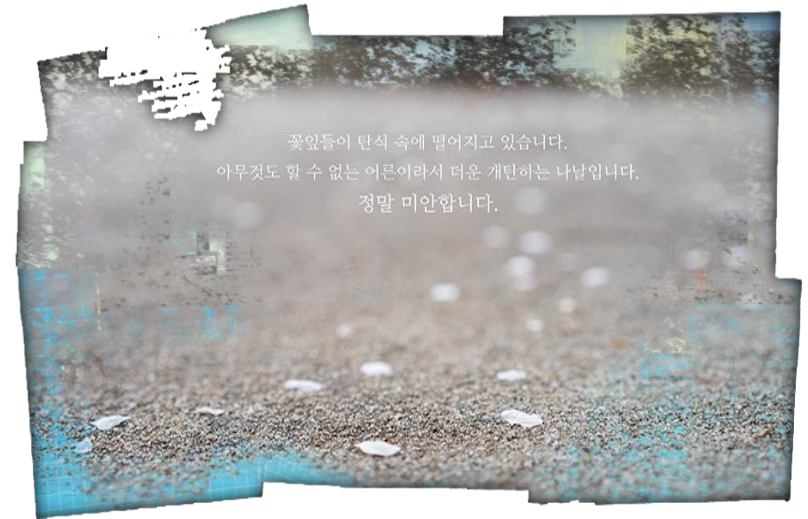
지난해 4월 16일, 수학여행을 가던 배가 침몰했다는 뉴스는 곧 구조될 것 이란 기대에 오히려 가벼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자연스러웠던 우리의 믿음은 '배신'당했고 꽃보다 아름다운 우리 아이들은 바다 속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혹자는 참담한 사건은 빨리 잊어야 한다고 했지만 아이들과 함께 저 바다 깊은 곳에 가라앉은 우리의 믿음과 자존감 마저 잊을 수는 없습니다. 두터운 독재자의 총칼의 세월을 뚫고 민주주의를 쟁취한 자신감도,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적 성장의 안정감도 모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눈빛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가 세번째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자 그를 쳐다보신 자애의 눈빛을. 십자가에서 제자와 어머니를 내려보시며 '네 어머니다'라고 하신 사랑의 눈빛을. 반면에 호산나를 외치던 입은 '십자가에 못박아라'고 소리쳤고 종려나무를 흔들던 손은 그분을 조롱하였습니다.

타자의 아픔을 속히 잊자는 마음은 언젠가 나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정의와 평화를 위한 수고를 게을리 한다면 언젠가는 자신의 자유와 안녕으로 맞바꾸게 될지도 모릅니다.

불과 7일! 예수를 향한 기대와 배신, 환대와 외면. 이해와 대립이 너무나도 극적으로 교차하는 이 7일의 기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도 더 이상 될 수 없습니다.



꽃잎들이 탄식 속에 떨어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이라서 터운 깨닫하는 나날입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함께 드리는 기도

- ❖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 ① 세월호 침몰로 희생 당한 이들과 뜻밖의 사고로 희생 당한 분들,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 ② 우리 주변에 남몰래 선행하시는 분들의 손길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 ③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평범한 사람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 ④ 묵묵히 자신이 맡은 임무에 충실하신 분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4월 5일 _부활절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의 부활

누가복음 22장 16~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증인’은 여러모로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초대교회는 순교를, 오늘날에는 정의와 평화를 위해 일하다가 대중에게 외면 당합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너무나도 갈망하여 “은총이여 오소서, 이 세상이 사라지게 하소서(didache10).”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반하는 온갖 잘못들이 바로 설 것을 희망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우리의 증언은 동시에 정의, 평화 그리고 생명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희망의 선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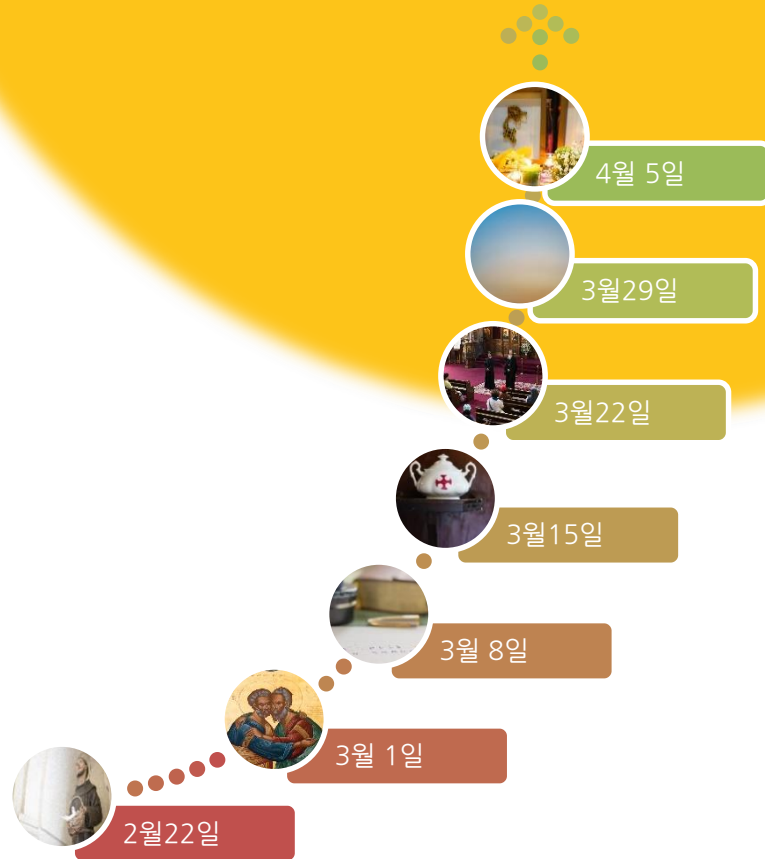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과 유월절, 마지막 만찬에서 성만찬을 제정하십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받아먹어라. 이것은 새로운 언약이다.’ 새로운 언약은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의 성취는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줌으로 이뤄집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는 자신의 순교를 일컬어 스스로를 “갈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의 빵이 됨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성찬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 안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물질의 변화가 아니라 의미와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신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곧 그의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입니다.




오늘의 '갈릴리'는 어디 입니까?

고난의 현장으로
갑니다.



성목요일고난주간열예배
 성금요일예배

세족목요일

-  침묵의 순례 (진도군청-팽목항)
-  세족예배 (팽목항)
-  찬미 (팽목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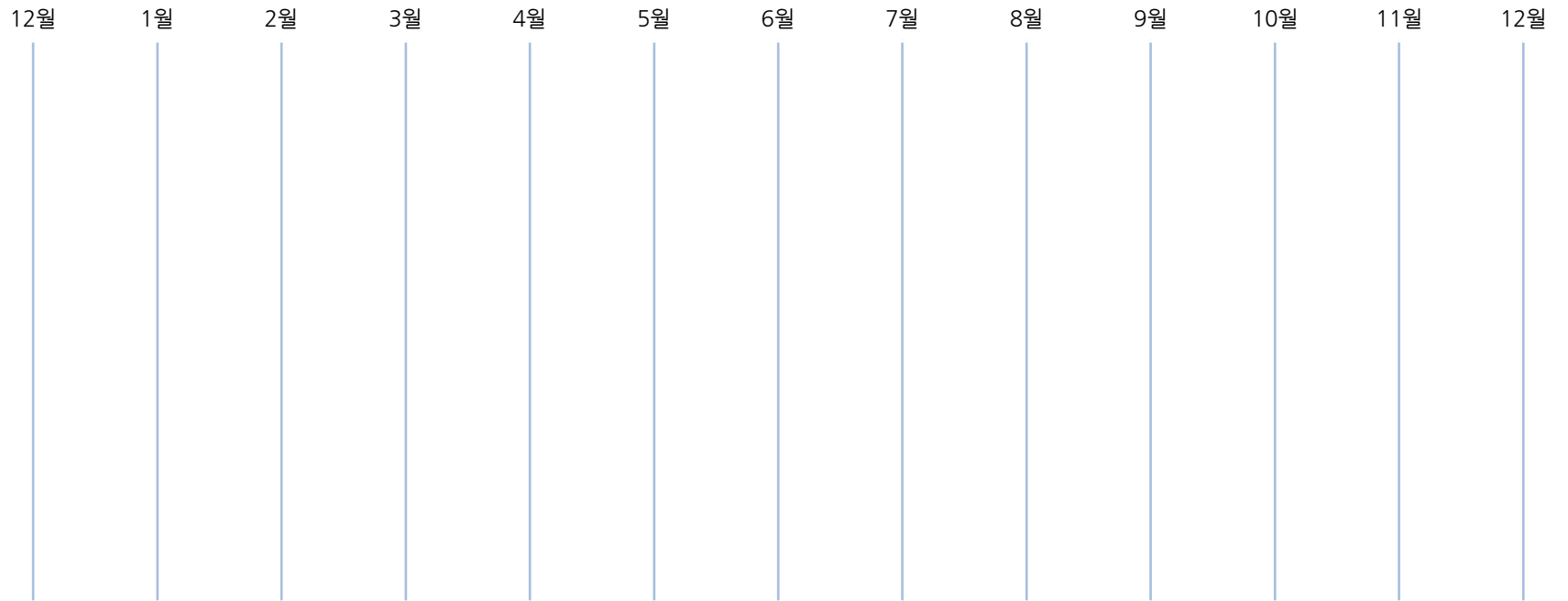


성금요일

-  성금요일예배 (팽목항)
-  성금요일예배 (126E 34N)
- 

2015년 부활절맞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대한예수교장로회
기독교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장로회
한국구세군
대한성공회
기독교대한복음교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한국정교회
기독교한국루터회

02. 763. 7323
kncc@kncc.or.kr

Homepage www.kncc.or.kr

Blog

SNS www.facebook.com/ncckorea

2015년 부활절맞이

위원장 : 황문찬 목사
위원 : 고석영 신부, 안준배 목사, 박인곤 보제
NCK 총무단회의
집행기구: 김태현, 강석훈, 김창현, 노혜민, 서범규, 황보현

